

지역 소식통

백산면 백산장학회
장학생 17명 선발

김제시 백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복석)는 지난 12일 백산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백산장학회는 11월 13일에서 24일까지 2주간 백산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을 이장들의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7명, 일반 대학생 9명, 예체능 특기생 1명을 선발하였다.

총 1,100만원의 장학금을 17명의 학생에게 오는 15일 송년의 밤 행사 시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용지면의 고령원성 AI 발생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송년의 밤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고 장학증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최미화 백산면장은 "백산장학회와 백산골프회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탑피스킨, AI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60만 원 기부

김제시 '나드리' 음식점은 연말을 맞아 13일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한광삼)를 방문해 청년자립을 위해 사용해 달라 말하며 160여 만원을 기부하였다.

현금 봉부와 함께 전달된 편지에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며 "나드리 직원과 손님일 등이 힘을 모아 모금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한광삼 동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귀한 성금은 신평동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받은 성금 160여 만원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생강, 아카이브 구축 '속도'

완주군, 전통농법 시스템 용역 중간보고회

완주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법 시스템 아카이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완주군은 최근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완주생강 전통농법과 관련한 자료 수집과 영구보존을 위한 분류체계의 정비, 기록물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제안 등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농업유산 지원정책에 부응하는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완주군은 최근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완주생강 전통농법 시스템과 관련된 농업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향후 자료의 수집과 분류, 공유를 위한 로드맵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며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꼭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며 "용역 이후 농업유산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농업유산 관리 로드맵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영식 부군수는 "완주생강 핵심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농법 시스템의 보전 관리 매뉴얼을 정리하고 향후 아카이브 구축 자료를 활용해 2024년 준공 예정인 완주생강 홍보체험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법 시스템'의 다양한 기록물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농업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교월동 최창인 복지공동대장은 지난 12일 교월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최창인 교월동 복지공동대장, 성금 기탁

행정복지센터 방문 100만 원 전달

김제시 교월동 복지공동대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최창인 대장은 지난 12일 교월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평소 복지공동대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최창인 대장은 "불가항력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주민에

게 잘 전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옥규 교월동장은 "최창인 대장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값지게 쓰이고, 불가항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마음을 베풀어 주신 최창인 대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 직원과 합심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 교월동을 만들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년 연속 농산시책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

쌀 수급안정 ·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정책 추진 호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산시책추진 지자체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물로 보인다. 농산시책 평가는 정부에서 1996년부터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 정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포상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은 물론 정부 표창 가운데 가장 받기 어려운 865ha 대비 2,015ha 감축, 전국 1위),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논콩 5,415ha, 전국 1위), 가루쌀 재배단지 육성(가루쌀 274ha, 전국 1위)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노력의 적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앞으로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힘쓰겠으며 농업수도로써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농업을 육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잘 사는 농촌 실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정보화 마을 행안부 장관 표창... 도내 유일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 관리 지원 등 정책 다양

완주군이 2023년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내에서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완주군이 유일하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1년부터 정보화 마을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도농 간 정보화 격차 해소와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지원,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사업,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및 네이버 쇼핑라이브 운영, 정보화 마을 FESTA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유 군수는 "이번 표창은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계절근로자 성공 운영 '주목'

현지 채용 · 단계별 교육 · 전담 공무원 채용까지 다각적 노력

완주군이 이탈을 제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13일 완주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44명이 입국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필리핀 비자야주 미나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MOU를 시작으로 완주군은 올해만 3개시와 협약했다.

협약과 함께 무단이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필리핀 미나시와 포도탄시를 직접 방문했다.

현지에서 1년 이상 농사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 및 신체 테스트 후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계절근로자는 25세~40세 이하의 근로자로 다수 선발했다.

근로자 입국 후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무단이탈 방지교육 △법무부 조기적응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생활교육(완주경찰서) △농작업 활동교육 및 한글학당 등의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했다.

이외에도 군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인 등록 및 통장 개설,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등 행정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와 근로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완주군 가족센터와 상담관리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에는 전담공무원을 채용해 계절근로자들과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 원활한 소통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내년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 중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차 확대해 농업경쟁력을 높일겠다"며 "인권교육 등 계절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